

초등학교를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골2:6-10).

우리들은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와 역사의 유일한 주되심을 고백한다. 많은 전쟁의 소리가운데서도 교회는 주 예수와 그의 계명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추구한다(고전 8:5-6). 교회안의 참된 권위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주님께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특히 주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가르침과 실천이 일어 날때 그것은 더욱 요구된다. 우리들은 포괄적, 내지는 포용성의 원칙을 너무 남용하여 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것을 배격한다. 우리들은 각 개인이 진리와 허위를,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적 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정하는 실천적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의해서 특별한 도전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 * 이방종교의 의식과 실천을 실험하는 것,
- * 가난한 자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물질 소비,
- * 난잡한 성행위, 계속하는 재혼과 이혼.
- *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부정의에 둔감해 짐.
- * 동성연애 행위를 인정하는 것.
- *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생모를 보호하는 역사적 교회의 위치에서 이탈함.

교회안의 새 가르침은 투표나 개인적 체험의 호소나 현 사회적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성경적 선언을 거슬러 설정할 수 없다. 사도적 신앙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과 실천은 헛된 속임수요 복음에 저속됨을 지적한다.

우리들의 신앙고백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한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구속자,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연합감리교회는 구조상으로 테두리없는 교리의 다양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모든 연합감리 교인, 평신도, 성직자들이 이 신앙운동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들은 개체교회, 각기관과 신학교와 연회들이 이 신앙고백을 수락할 것을 서원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 신앙고백 운동을 위하여 사도적 증언에 순종하고 세계 복음화를 도모하는 모든 교단내 활동, 그룹, 프로그램과 출판물 충실하게 보조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들은 이 신앙고백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도전할 것이며 맹렬한 책임추궁을 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영광중에 오심에 준비하면서 이 신앙고백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초교파적 협력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 신앙고백 운동은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확인 할 뿐 아니라 개체교회에서도 교회 임원회나 구역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아래 주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The Confessing Movement
within The UMC
7995 E. 21st Street
Indianapolis, IN 46219

Phone/(317)356-9729
Fax/(317)356-9742

한국어번역: 조하경목사
Korean Translation: Rev. Dr. Ha-Kyung Jo Kim

연합감리교회 신앙고백운동의

신앙고백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구속자,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신앙고백운동은 연합감리교회안에서 전통적인 교리의 원형을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1995년 4월 29일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열린 신앙고백운동 총회에서 9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신앙고백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채택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구속자, 주로 고백한다.

서론

1994년 부활절 주간에 92명의 평신도, 목사, 감독, 전문가들이 모여 연합감리교회의 장래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우리는 연합감리교 안에 직면한 믿음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회 전체 앞에 총회를 위한 초청장을 낸 바 있었다.

우리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갱신 및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아래와 같다.

연합감리교회가 교리적 신앙고백과 선언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도적 신앙으로 교회연합이 가능한가? 연합감리교회가 성서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교리적 기준과 총칙 및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것을 인정하는 가르침을 어떻게 정당화 할 것인가?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전통적 교리인 “삼위일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와 교리의 주인되시는 “주”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다 하면서 우리교단은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뿌리를 파헤치고 있다”(잔 웨슬리). 우리교회는 성령에 뿌리를 두지 않은 개인적 신앙해석을 허용하는데서 오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 신앙고백서의 목적은 연합감리교회, 즉 모든 평신도,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을 고백하고, 왕으로 오실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신앙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이심과, 구세주이심과, 모든 것의 주되심을 도전하는 연합감리교

회안의 모든 가르침과 실천들을 대항하고 배격한다. 이 신앙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피어진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공통된 증언과 삶을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아래 두는 바이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성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5-17).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로 믿는 것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신앙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와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요한과 다른 사도들과 같이 나사렛 예수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영원한 성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나심을 고백한다(요1장).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의 사도적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신성과 인성이 함하여 지신 분(신성과 인성의 본질이 나누어 질 수 없이 함하여 지신 분), 즉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한다(니센고백). 또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자신을 나타내심을 믿으니, 그는 곧 구별되나 나눌 수 없으며, 본질과 능력에 있어 영원히 한 근본이시요, 능력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번째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충만하게 보여 줄 수 없다는 주장을 거부한다(히1:1-3). 우리는 남성인 예수는 하나님의 참 계시가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거절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없이 충분히 알려 질 수 있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사도적 신앙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은 거짓된 속임수요 복음에 저촉되는 것이다.

구세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4:12).

우리들은 성경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고백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시는 모범과 능력을 우리는 본다(히2:14-18). 그의 순종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과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그는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반항하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 오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신다.(고후5:18-21).

우리들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생명을 주는 부활을 부인하고 혹은 대치하는 가르침을 배격한다. 우리들은 타종교와 대화한다는 미명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업적을 과소평가 내지는 무시해 버리는 입장을 반대 한다. 우리들은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과소평가하여 그리스도의 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많은 길 중의 하나가 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사도적 신앙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은 헛된 속임수요, 복음에 저촉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주 예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